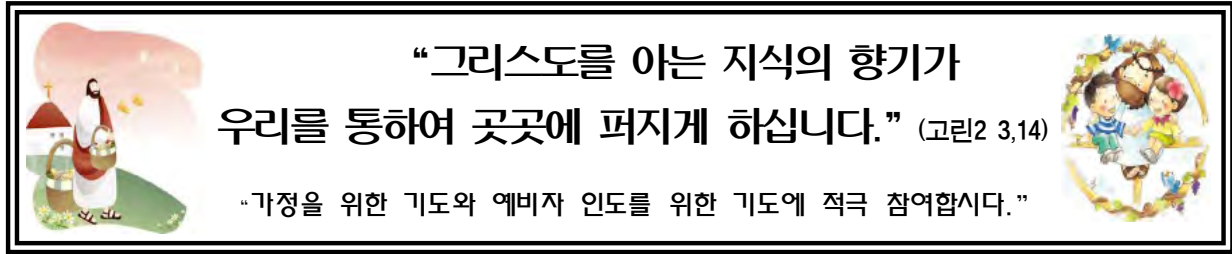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문호진(안토니오), 문예나(요안나) 가정
- **마이클 모랜, 이영민(엘리사벳)**  
대니엘 모랜, 브라이언 모랜 가정

오늘은 "연중 제21주일" 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만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체성사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삶, 복음의 삶을 살라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9월 기도지향

- **주영길(토마스) 신부님**

새 신부님 환영 및 부임미사 - Fr. 주영길(토마스)

8월 17일(금) 청주교구에서 사제 소임이동을 발표했습니다. 제5대 캔사스 한인천주교회 주임으로 청주 성모 병원 원목실장 **주영길(토마스)**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캔사스에 오시는 신부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공동체는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겠습니다..

- 캔사스 도착 : **8월 28일(화) 공항 2시 20분(American Airlines)**
- 부임 첫미사 : 9월 2일(주일) 중심미사 때

오마하 한인성당과 친교의 날

오마하 한인성당과의 **친교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가 오마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하 공동체가 정성스럽게 방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시오.

- **친교의 날 : 9월 16일(주일)**
- **신 청 : 문석찬 요셉(행사분과장) 및 행사분과원**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38	214	163, 164	43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정준구(파비아노)	고영방(스테파노)
	정병훈(보니파시오)	고평원(프란치스코)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야)	홍순익(마르띠노)
	문예나(요 안 나)	김준영(요 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김명은(안 젤 라)	김태중(예레미야)
	김주연(세실리아)	김지민(글 라 라)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안동현(프란치스코)
	김주연(세실리아)	지은경(리 브 가)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황의정 율리안나, 최선운 마리아, 정연숙 막달레나	
다음주일	가정당 헌정시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다음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우금에 정성을 다해투신서 감사합니다!!!

<8월 12일>  
- 미사참례 : 103명  
- 주일헌금 : \$410  
- 교 무 금 : \$1980

<8월 19일>  
- 미사참례 : 86명  
- 주일헌금 : \$447  
- 교 무 금 : \$359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도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복스럽게 여겼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 성화해설

광희문

서울대학교,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소재.

광희문은 장충단과 한강 사이의 수구문으로 본래 서소문과 함께 도성 안의 시체를 성 밖으로 운반하던 곳이었다. 그런 뜻에서 시구문으로도 불린 광희문은 천주교인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계속되는 박해로 서울과 수원, 용인 지역의 교우들이 도성 안으로 끌려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 속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다가 끝내 치명적 길을 가야 했다. 도성 안에서 참수 치명한 순교자들의 시신은 짐작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이곳을 통해 내다 버려졌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여호 24,1-27.15-17.18-20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 님 께서 얼 마 나 좋 으 신 지 너 희 는 보 고 맛 들 여 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자랑해 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
-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 보시고 당신의 귀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나니 주님의 얼굴은 악을 하는 자들을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땅에서 없애려 하시나니. ◎
- 의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 걱정을 다 풀어 주시었도다. 마음이 부서진 이를 주님께서 가까이하시고 넋이 꺾인 이들을 구하시도다. ◎
- 울골은 사람은 불행이 많아도 주님께서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고스란히 그의 뼈를 지켜주시니 그 마디 하나도 아니 부러지리라. ◎
- 악인은 악으로 해 죽음을 당하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벌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 당신 종의 목숨을 구하시니 당신께 피하는 이는 죄를 받지 않으리라. ◎

제 2 독서 : 에페 5,21-32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는 큰 신비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웁니다.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 음 : 요한 6,60-69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말씀의 이삭

## “떠나느냐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했지만, 신앙인은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남느냐, 떠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 곁에 남는 것과 떠나는 것, 이 사이에서 내가 택할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말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곁에 있지만,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신앙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켜주고, 인간적인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은 ‘아니’라고 우려보고 싶지만, 예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우스개소리로 ‘냉담 신학생’이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신학생은 사제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에, ‘하느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식어 주님을 떠나 있다’ 는 의미의 냉담이라는 말을 농담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연중에 사용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록 신학생 자신과 동료들에게 좀 더 하느님과 사제의 삶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고도의 풍자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냉담 신학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담 신부’, ‘냉담 수녀’, ‘냉담 평의회장’, ‘냉담 단체장’, ‘냉담 구역장’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말 말하면 ‘무늬만 신부’, ‘무늬만 신자’ 이런 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냉담’ 이 난무하는 교회의 현실에서, 언제부터인지 신앙의 열정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총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

고 대부분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과 성당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현실과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대화를 떠올려 봅시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몸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함께 해야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느님에게 믿음을 두는 사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 함께 나누어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쇼핑을 하는데, 우선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천국 백화점 1층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사랑’ 을 카드에 실었습니다. 기쁘고 평화롭게 이웃들과 사는 것이 중요해서 코너 옆쪽에 있는 ‘평화’ 와 ‘화해’ 도 실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있을 것 같아 차곡차곡 쌓여있는 ‘오래 참음’ 도 하나 올렸습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게 자비를 베풀 일도 있을 것 같고, 착하고 중성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자비’ 도 충분히 담았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온유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온유’ 도 신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면 스스로 절제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 싶어 마지막으로 ‘절제’ 도 한 묶음 실었습니다.

### 살아야 할 값

그리고 계산대로 가서 너무 비싸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는 천사에게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모두가 “공짜”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모든 것이 어떻게 공짜냐고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야 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믿음과 의지로 내가 살아야 할 것들을 담아내고 살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서 월계관을 얻어야겠습니다.



### 교부들의 신앙

## 오리게네스의 작품과 가르침

### 2) 오리게네스의 작품

오리게네스의 저술은 방대하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는 고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이다. 교회사를 쓴 에우세비우스가 작성한 목록에는 200편의 저술이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중 일부만이 오늘날 전해 오고 있다. 그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신학과 영적 생활을 다룬 저술로는 [순교에 대한 권고], [기도론]을 대표로 들 수 있고, 이교철학자 켈수스의 한 작품을 반박한 논쟁 작품으로는 [켈수스 반박]이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전체 저술 중에서 성서에 대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주해(각 구절마다 붙이는 설명), 스킴리아(특히 난해한 구절을 발췌하여 특별히 설명한 내용), 강론(대중을 상대로 한 설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오리게네스의 유명한 작품이 바로 [헬사플라]이다. 이 작품은 여섯 난으로 편입된 대조 성서이다. 그 때까지 존재하던 성서의 6종류의 역본들을 모두 수록하였다. 즉 첫째로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둘째로 발음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 본문에 그리스어 발음기호를 덧붙여 넣은 역본, 기원전 3세기 경의 70인 역본, 기원후 2세기 경의 아퀼라 역본과 심마쿠스 역본,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역본 이렇게 당시의 모든 성서들을 나란히 펼쳐 놓고 빠진 것, 덧붙여진 것, 잘못 기록된 것 등을 비교하면서 특히 70인역을 다룬 다섯 번째 난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서 오리게네스는 다른 역본과 비교하여 히브리어 원전에서 탈락된 요소들을 독특한 기호를 써서 표기해 두었다. 이전에는 그리스어 본문으로 이런 작업이 된 문헌은 한 번도 없었다.

오리게네스의 저술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이른바 오리게네스 논쟁으로 인한 공격과 오리게네스가 했다는 주장들에 대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553년)의 단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분량의 오리게네스 저술에 대한 조직적인 파괴가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권은 일부가 그리스어로 전해 오고(원리론의 일부와 켈수스 반박), 다른 저술들은 라틴어 번역본으로 전해져 오지만, 성서주해 저술로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단 한 권도 없다.

### 3) 오리게네스의 가르침

오리게네스는 그리스 사상의 후계자로서, 필론과 판테누스 그리고 클레멘스로 이어지는 유다교적이면서도 그리스도교적인 조화로운 전통 노선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저서는 사변적 신학, 논쟁, 성서주석, 영성 등의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의 작품은 선구자적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동서방을 통틀어 후대의 여러 세기에 걸쳐 이어진 신학적 모색과 주석학적 탐구에 기초를 놓아 주었다.